

3 정책동향

1. 반도체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

○ 반도체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... 반도체공급망 대책 조만간 발표

- 산업통상자원부는 4.9일(금) 산업부 장관 주재로 「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
 - 금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①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, ②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최근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, ③국내 투자 확대 및 정부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함
- 산업부와 업계는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IT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생산기지로서,
 - D램의 71%, 낸드의 45%, 첨단 파운드리 40% 등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함
 - 또한, ①글로벌 공급망 안정화, ②민간투자 확대, ③인력 양성, ④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방안, ⑤차세대 전력반도체·AI 반도체와 같은 신시장 개척 등 반도체 관련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
-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”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 - 업계는 ①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, ②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공급, ③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, ④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하였음

* (예시) △R&D 및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%까지 세액공제 확대, △반도체 제조시설 신·증설시 각종 인·허가 및 전력·용수·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지원, △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, △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

|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

2. 반도체 인력양성에 팔 걸었다

향후 2년간 4,800명 반도체인력 공급 약속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.14일(수)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하여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,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함
 - 금번 간담회에서는 ①반도체 산업의 인력부족 현황 점검, ②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공유하고, ③반도체 우수인력 양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함
- 앞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석·박사 학생들과의 사전간담회를 진행하여, 반도체 관련 연구 활동, 취업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하였음
 - 학생들은 “학교에서 반도체 전체 공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 반도체 전공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관심있는 비전공자들도 공정 실습 경험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”고 언급함
- 그간 산업부는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'19년 「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」 발표 이후, 민·관 합동으로 대규모 인력사업을 추진한 결과, 1,0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였음
 - 반도체설계교육센터(IDEC*), 설계지원센터 등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집중 지원하였으며,
 - * IDEC(IC Design Education Center, 반도체설계교육센터) : 설계용 SW 제공 및 관련 프로그램교육
 - '21년부터 연세대 '시스템반도체공학과'(연세대-삼성전자, 年 50명), 고려대 '반도체공학과'(고려대-SK하이닉스, 年 30명) 등 채용연계 계약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
- 3.6만명 수준인 반도체 산업기술인력('19년 기준)은 향후 10년간 매년 1,500명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, 반도체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학사급, 석·박사급, 실무인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여 '21년~'22년간 총 4,800명 이상의 다양한 인재를 배출할 계획임
- 산업부장관은 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,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”면서,
 - “우리나라의 초격차 유지, 설계·공정 난이도 증가에 대한 대응,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반도체 핵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.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우수인력이 질적·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하였음